



The Red Roses in the Garden, 26,0×18,5cm, 2001.

갤러리 자인제노, 원로화가 이경순 개인전

원로작가 이경순(84) 화백의 제17회 개인전 '한 아름 장미(The Armful of Roses)'가 서울 종로구 창성동 갤러리 자인제노에서 5월 1~10일 열린다.

이 화백은 우리나라 전후 구상회화의 1세대 작가다. 1953년 제2회 국전을 시작으로 15차례 입선하고 4차례 특선했다. 여성 서양화가로는 유일하게 국전 추천작가와 초대작가를 역임했다. 1950년 이화여대 회화과, 1962년 같은 대학 대학원 회화과를 졸업한 뒤 1965년 서울 신

문화관 화랑에서 첫 개인전을 연 이래 이번 17회 개인전까지 팔순을 훌쩍 넘긴 고령에도 붓을 놓지 않고 꾸준히 꽃과 정물을 그려왔다. 한국 화단에서 '눈에 비치는 자연의 아름다움을 있는 그대로 긍정하고, 그 긍정 위에 새로운 아름다움을 수립하는 작가'로 평가받는다.

이번 전시에선 1980년부터 그려온 미발표작 '뜰의 장미'를 포함해 80여 점의 그림을 선보인다. 60년이 넘는 긴 세월 동안 장미를 그려온 작가는 장미를 가리켜 '꽃 중의 꽃'이라고 부른다. "어느 각도에서 보나 다 아름답기 때문"이라는 게 그 이유다. 장미는 또 작가가 '주부이자 화가

로서의 삶을 모두 살게 해준 고마운 꽃'이기도 하다. 작가가 어린 시절을 보낸 서울 청파동 집과 결혼 후 아이들을 키우며 생활했던 효창동 집에는 장미가 흐드러져 일상에 큰 힘이 되는 무한한 희열을 느낄 수 있었다고 한다. 전시장 벽면을 화사한 꽃밭으로 변모시킨 이번 전시에서 장미꽃들을 마주하게 되면 "꽃을 보기 위해 그림을 그린다"는 작가의 말이 마음에 와 닿는다. 이 화백은 딸 조기주(단국대 서양화과 교수) 씨와 함께 모녀 서양화가로도 잘 알려져 있다.

문의 02-737-5751 관람료 무료

'색과 형태' 통한 시각 언어의 표현, 정수진 전

전시 5월 22일까지
관람료 무료
문의 02-736-1446-8

그림을 볼 때 '이건 뭘까' 하고 의미를 찾아내려 하는 관객에게 작가 정수진(42)의 그림은 수수께끼처럼 느껴진다. 알 수 없는 문양들과 사람들, 캔이나 지양강장제 병 같은 각종 사물과 풍경 등 전혀 상관없어 보이는 이미지들이 질서정연하게 캔버스를 가득 메운 그의 그림 앞에 처음 선 관객이라면 그림 속 도상들과 그림이 무슨 의미를 전달하는지를 읽어내려 고민하게 된다. 그러나 작가는 그런 관객에게 그림을 '읽어내려' 하지 말고 그저 '보라'고 이야기한다. 그에게 그림은 어떤 메시지를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색과 형태'라는 시각 언어를 표현한 것이기 때문이다. 서울 삼청동 몽인아트센터에서 열리고 있는 개인전에서도 이런 태도는 여전하다.

출품작 중 판화 100점으로 구성된 '어너더 100 세컨즈(Another 100 Seconds)'는 작가의 작업 태도에 대한 힌트를 주는 작품이다. 한 남자가 물컵이 놓인 책상에 앉아 무언가를 읽는 장면을 100장 인쇄한 뒤 그 위에 자유롭게 드로잉하고 채색해 변형한 작업으로, 개개의 작품은 작가가 자신의 의식 속에 떠오르는 이미지를 다양하게 조합하는 과정을 보여준다.

'선으로 그린 얼굴' 작품도 마찬가지. 다양한 얼굴 모양을 화면 가득 그려놓은 이 작업은 '얼굴'을 그린 것이라기보다는 '선(線)'으로 구성된 이미지를 보여주는 것이다.

정수진, 입체 나선형 변증법, 2011.



통인미술관, 독일 사진작가 '유르겐 텔러' 전

전시 7월 31일까지
관람료 5천 원
문의 02-720-0667

유명 걸그룹 '스페이스 걸스'의 멤버이자 축구스타 데이비드 베컴의 부인으로 유명한 빅토리아 베컴이 마크 제이콥스 쇼퍼백 속에 다리를 벌린 채 들어간 모습, 버려진 듯한 낡고 지저분한 손수레 속에 유명 패션모델 케이트 모스가 거의 나체로 들어가 누워 있는 모습. 마크 제이콥스, 이브 생로랑, 비비안 웨스트우드, 셀린느 등 해외 유명 브랜드의 광고 사진 작업으로 유명한 독일의 사진작가 유르겐 텔러(47)의 개인전이 서울 동의동 대림미술관에서 열리고 있다. 모델에 집중하며 예쁜 장면만을 잡아내려는 대부분의 광고 사진들에 익숙한 사람들에게 텔러의 사진은 파격적이다. 톱모델인 빅토리아 베컴을 모델로 쓰면서 그의 얼굴을 드러내지 않은 채 벌린 다리만 보여준단지, 일부러 과다노출을 시켜 사진을 뿌옇게 만드는 사진들은 보는 이에게 강한 인상을 남긴다.

텔러 사진의 또 다른 특징 중 하나는 일상의 한 장면을 초현실적으로 표현하는 것이다. 흰 시트가 깔린 침대 위에 놓인 문어, 동물의 다리처럼 보이는 나무껍질, 남성 성기 모양의 종유석, 뼈만 남은 동물의 사체처럼 보이는 녹슨 철 구조물 등을 찍은 사진은 별 조작을 가하지 않았지만 환상적인 느낌을 풍긴다.

전시에는 마크 제이콥스와 비비안 웨스트우드의 광고 사진을 비롯해 데이비드 호크니, 로니 혼 등 유명 미술작가들을 찍은 초상사진이 소개된다.

Kate Moss, Gloucestershire, No,12, 2010.





감독 강형철 출연 유호정, 진희경, 심은경, 강소라 개봉일 5월 4일, 15세 이상 관람가

1980년대 추억 속으로 '써니'

'써니'는 꿈과 아픔이 교차하는 10대 시절, 함께 꿈을 나눴던 친구들을 떠올리게 할 만한 영화다.

데뷔작 '과속스캔들'(831만 명)로 박히트를 친 강형철 감독이 가일층 진일보한 두 번째 영화를 들고 돌아왔다.

전라남도 벌교에서 서울로 이사 온 나미는 무스로 머리를 세우고 나이키 신발을 신은 서울 여학생들에게 첫날부터 기가 죽는다.

뒷자리에 앉은 '전교짱' 춘화가 호감을 보이면서 나미는 자연스레 못난이 장미, 옥쟁이 진희, 문학소녀 금옥, 미스코리아를 꿈꾸는 복희, 얼음공주 수지 등으

로 이뤄진 패거리에게 끼게 된다. 7공주를 꿈꾸는 '조작'(?)의 이름은 '써니'. 그로부터 25년이 흐른 후, 나미는 우연히 병원에서 춘화를 보고 그녀가 2개월밖에 살지 못한다는 사실을 알게 된다. 그리고 춘화로부터 옛 친구들을 규합해 달라는 마지막 부탁을 받은 나미는 소식이 끊긴 옛 친구들을 찾기 시작한다.

춘화를 만난 후 친구를 찾기 위한 나미의 여정이 시작되면서 영화는 1980년대 음악 등 추억의 매개물을 통해 과거와 현재를 넘나든다. 독창적이지는 않지만 내용과 잘 맞물리는 매끄러운 시간여행이다.

인상적인 장면이 여럿 있다. 리처드 샌더슨의 '리얼리티(Reality)'가 소피 마르소의 귓속을 파고들던 '라붐'의 한 장면을 패러디한 장면, 서부극을 떠올리게 하는 써니 그룹과 핑클 그룹의 7대7 대결, 보니엠의 '써니(Sunny)'에 맞춰 인물들이 흥겹게 춤추는 장면 등이 눈길을 끈다.

백미는 그룹 조이의 노래 '터치 바이 터치(Touch by Touch)'가 흐르는 가운데 전경과 시위대 간 격렬한 충돌이 벌어지고, 그 안에서 '써니' 그룹과 핑클 그룹이 드잡이하는 장면이다.

'써니'는 과거와 현재를 넘나드는 이야기의 조화, 편집의 유기성, 시대의 분위기를 영화 속에 녹이는 자연스러움 등에 있어 올해 나온 한국 상업영화 가운데 독보적인 만들새를 보여준다.



NEW FILMS

1. 시선 너머

2003년부터 시작한 국가인권위원회의 8번째 인권영화 프로젝트다.

탈북자나 이주 노동자에 대한 편견과 차별, 직장 내 성폭력 등 우리 사회에 있는 다양한 인권 문제를 되돌아보게 하는 단편 영화 5편을 묶었다.

'이빨 두 개'(강이관), '니마'(부지영), '백문백답'(김대승), '바나나 웨이크'(윤성현), '진실을 위하여'(신동일) 등은 작품 완성도가 고르게 높은 편이다. 그중에서도 최근 장편 독립영화 '파수꾼'으로 찬사를 받은 윤성현 감독의 '바나나 웨이크'가 단연 돋보이는 영화다.

이삿집센터에서 일하는 봉주와 필리핀 출신 알빈이 이삿집을 나르고 나서 귀중품이 없어지자 알빈이 집주인과 동료로부터 도둑으로 의심받으면서 일어나는 이야기다.

감독 강이관, 부지영, 김대승, 윤성현, 신동일 출연 김현주, 김태훈, 심이영 개봉일 4월 28일, 12세 이상 관람가

2. 마더 앤 차일드

14살에 버린 아이 때문에 평생 죄책감에 시달려온 카렌(아네트 베닝), 대인관계가 원활하지 않은 데다가 연애는 제대로 해본 적도 없다.

어머니를 잃은 후 상심하던 그녀는 성격 좋은 직장동료 파코(지미 스미츠)의 접근에 불안해 하다가 얼결에 결혼까지 하게 된다.

한편 태어나자마자 입양된 카렌의 딸 엘리자베스(나오미 왓츠)는 변호사로 안정적인 삶을 살아가던 중 덜컥 임신하고, 오랜 세월 아이를 낳지 못해 고민하던 루시(케리 워싱턴)는 남편과 함께 입양을 신청한다.

제목처럼 엄마와 아이의 문제에 천착한 영화다. 아이를 버린 엄마의 죄의식, 버려졌기에 나를 단단히 옥죄며 커야 했던 딸, 그리고 아이를 낳지 못해 입양을 해야 하는 커플의 이야기가 이어진다.

감독 로드리고 가르시아 출연 아네트 베닝, 나오미 왓츠 개봉일 4월 28일, 청소년 관람불가



1



2

3. 마오의 라스트 댄서

중국 산골마을의 평범한 소년 리춘신은 어느 날 베이징 무용 학교에 발탁돼 어린 나이에 집을 떠나 맹훈련에 들어간다.

평발이라는 약조건에도 언젠가 날고야 말겠다는 꿈을 이루려고 밤마다 홀로 피나는 연습을 하던 그에게 기회가 찾아온다. 미국 휴스턴 발레단장의 눈길을 사로잡아 교환학생 자격으로 미국 땅을 밟게 된 것.

리춘신은 공연에 깜짝 출연해 스타가 되고 발레리나인 리즈를 만나 사랑에 빠진다. 자유의 소중함을 맛본 그는 리즈와 결혼해 미국에 남으려 하고 중국 영사관에 억류되는 소동 끝에 미국을 선택한다.

동양인 최초로 휴스턴 발레단에 입단한 리춘신(1961~)의 동명 자서전을 바탕으로 평범한 시골소년에서 세계적인 무용수가 된 그의 성공 스토리를 그린 영화다.

감독 브루스 베레스포드 출연 초차오, 브루스 그린우드, 카일 맥라클란 개봉일 4월 28일, 전체 관람가

4.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이별

차매에 걸린 시어머니를 모시고 두 남매를 키우는 의사부인 인희(배종옥). 아이들은 다 컸다고 제멋대로 행동하고 남편 정철(김갑수)은 누적된 피로에 가정 대소사를 소홀히 한다.

인희는 불쑥불쑥 찾아오는 뼈저린 고통 때문에 병원을 찾고 말기 암이라는 진단을 받는다. 관객들을 울리기로 작심하고 만든 상업영화다. 시작한 지 10분이면 영화의 결론은 뻔히 보이고 어떻게 흘러갈지도 대충 예상된다.

이런 감독의 전략을 다 알고 있다고 냉소를 치는 관객들이라도 영화를 보다 보면 눈가를 훔칠 공산이 클 것 같다.

'생로병사'를 피할 수 없는 게 인간이다 보니 영화를 보면서 때론 부모님을, 아픈 부모님을, 혹은 저지른 불효를 자연스럽게 떠올릴 수 있기 때문이다.

감독 민규동 출연 배종옥, 김갑수, 유준상, 서영희, 류덕환, 박하선, 김지영 개봉일 4월 21일, 15세 이상 관람가



3



4

» 전문가를 맹신하지 말라 데이비드 프리드먼 지음, 안중희 옮김/지식갤러리/412쪽/1만5천 원



‘전문가에 따르면’, ‘~연구소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으로 시작하는 수많은 정보는 어디까지 믿어야 할까? 주식시장의 강세가 지속될 거라는 전문가들의 한목소리에 투자를 했다가 손해를 보았거나 자녀양육, 건강 등의 분야에서 서로 다른 목소리를 내는 전문가들 때문에 혼란을 겪은 사람들이라면 적어도 한번쯤 ‘전문가’의 권위에 회의를 품었을 것이다. 미국의 저널리스트가 쓴 이 책은 대중을 현혹시키는 전문가들의 ‘거짓말’을 파헤치고 있다.

전문가들이 치명적인 오류를 범해 본의든 아닌든 거짓말을 하게 되는 이유는 많다. 전문가 스스로 편견에 빠져있거나 합리적인 사고와 전문성이 결여된 경우도 있고 이해관계가 얽혀 고의로 거짓 정보를 만들어내기도 한다. 또 소위 ‘전문가’들이 청중이 듣고 싶어하는 말을 그때그때 하다 보니 오류투성이의 전문지식이 재생산되는 경우도 있다. 이 책은 전문가의 권위를 빌려 전해지는 정보의 홍수 속에서 침몰하지 않고 헤쳐 나갈 수 있는 지침도 전한다.

» 한국인이 매운 맛에 빠진 이유는? 주영하 지음/휴머니스트/560쪽/3만 원



역사적, 철학적, 문화적 맥락 속에서 한국 음식을 읽어내고 있는 책이다. 동아시아 음식문화와 역사를 연구한 저자는 “식사로서의 음식은 일상이지만 역사와 문화로서의 음식은 인문학”이라며 한국 음식의 다양한 주제를 인문학적 관점에서 풀어낸다. 예를 들어 ‘한국 음식=맵다’라는 공식이 언제부터, 어떤 경로로 퍼지게 되었는지를 살펴보기 위해 18세기 조선 사회상에 주목하는 식이다. 이 무렵 관상제가 피지배층에게까지 퍼지고 제사도 확대돼 주요 제수용품인 어물을 절이기

위한 소금의 수요가 급증했는데 소금의 수요를 대체하고 짠맛도 상쇄하기 위해 고추와 고춧가루 사용이 늘었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주택과 가족제도의 변화가 음식 소비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음식 한류’의 실체는 무엇인지, 근대의 물결 속에서 한식이 어떻게 변화했는지 등도 입체적으로 들여다본다. 특히 한국인의 대표음식인 비빔밥이 어떤 과정을 거쳐 ‘진화’ 왔는지를 서술한 내용과 홍명희의 소설 ‘임꺽정’ 속에 묘사된 조선 음식이 얼마나 실제와 가까운지를 살펴본 부분도 흥미롭다.

» 낭만을 싣고 달리는 기차 여행 윤창호·이형준·정태원·최환영 지음/터치아트/328쪽/1만5천 원

지난해 12월 경춘선 복선전철 개통으로 인해 무궁화호가 마지막 운행을 하던 날, 많은 사람들이 아쉬움을 표했다. 북한강 철길을 따라 이어진 경춘선은 첫사랑과 대학교 모교지, 군 입대의 추억이 녹아 있는 열차였기 때문이다. 경춘선은 청춘과 낭만의 대명사로 통했다. 세계에는 경춘선만큼 흥미로운 이야기가 얽혀 있는 기차가 많다. 며칠 동안 광활한 대륙을 가로지르는 시베리아 횡단 열차, 호화로운 객실과 극진

한 서비스가 특징인 블루 트레인, 천상의 호수라는 ‘티티카카’까지 340km의 길을 13시간이나 달리는 안데스 고산 기차 등 이름난 기차들은 탑승하는 것만으로도 여행이 된다. 여행작가로 활동하고 있는 저자들은 유럽, 아시아, 북미, 남미, 호주의 열차 20개를 소개한다. 작은 증기기관차부터 호텔을 연상시키는 특급 열차까지 면면이 다양하다. 기차를 타고 가면서 둘러볼 수 있는 명소 등도 덧붙여져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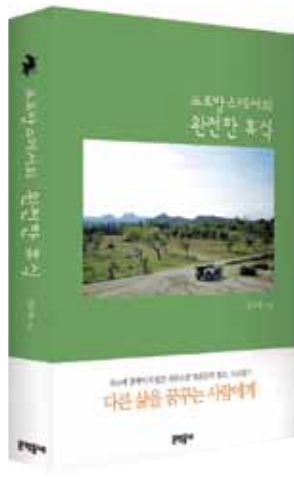
» 제주도에선 올레길만 있는 것이 아니다 강석균 지음/넥서스 북스/480쪽/1만9천800원

2007년 생겨난 올레길은 제주도뿐만 아니라 한국을 대표하는 도보여행 길이다. 화산섬 제주도의 아름다운 비경을 따라 난 길은 폭발적인 반응을 불러일으켰다. 저자는 올레길의 매력에 동의하면서도 제주도에선 또 다른 길들이 많다는 점을 강조한다. 제주도 사람들만 아는, 그래서 접근하기 어렵고 불편한 길도 걸어보라는 것이다. 이 책에는 대부분 해안가를 따라 조성된 올레길과는 대조적인 경관을 보여주는 숲, 오름, 한라

산의 길이 정리돼 있다. 이러한 길들을 거닐다 보면 제주도의 독특한 식생을 관찰하고, 삼림욕을 즐길 수 있다. 또 이미 올레길로 지정돼 있는 우도, 가파도, 추자도 외에 마라도와 비양도의 걷기 코스도 소개돼 있다. 모두 53개에 달하는 제주도의 길은 누구나 따라 걸을 수 있도록 자세한 지도가 그려져 있다. 길이와 소요 시간, 난이도, 가는 법도 확인할 수 있다.



» 세상에서 가장 인간적인 마을에서 쓴 일기 정수복 지음/문학동네/412쪽/1만5천 원



학자의 연구는 ‘왜’라는 의문에서 시작된다. 프랑스에 사는 한 사회학자는 수많은 고장 중에서 왜 프로방스에 반했던 것일까. 그는 노랑과 투명한 햇빛과 고대 로마시대의 유적, 자연과 문화가 조화를 이룬 도시를 이유로 든다. 또 학자이면서도 전문적인 ‘산책자’임을 자처하는 저자는 프로방스의 아기자기한 마을과 예쁜 길이 마음에 들었다고 말한다. 이 책은 그가 2005년 7월 21일부터 8월 21일까지 프로방스에서 보냈던 한 달 동안의 일기이자 견문록이다.

프랑스 남쪽에 위치한 프로방스는 많은 예술가들이 기거했고, 칭송했던 지역이다. 반 고흐와 피카소 등 화가는 물론 알퐁스 도데, 알베르 카뮈 같은 작가들도 이곳에 머물렀다. 프로방스에 사는 인생이 아름다워지고 ‘완전한 휴식’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저자에 따르면 프로방스는 소유한 것이 많지 않아도 사는 것을 즐길 수 있는 ‘조급증을 치료하는 요양의 장소’이다. 이러한 사실은 작가가 빨리 빨리 문화에 길들여진 한국 사람들에게 프로방스를 추천하는 까닭이기도 하다.



» ‘거짓말 금식’ 40일간의 도전 위르겐 슈미더 지음, 장혜경 옮김/웅진지식하우스/368쪽/1만4천 원

한 연구 결과에 따르면 인간은 깨어있는 동안 4.8분에 한 번 꼴로 거짓말을 한다고 한다. ‘살마’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친구의 이야기를 보고 “뭇생겼다”고 말할 수 있는지, 관심 없는 사람에게 “잘 지냈어?”라는 의례적 안부를 묻은 적 없는 지 떠올려보길 바란다. 이 책은 독일의 한 일간지 기자인 저자가 ‘40일 동안 거짓말하지 않기’라는 독특한 실험에 도전한 후 쓴 책이다. ‘거짓말 금식’ 기간에 저자는 친구의 비밀을 폭로해 세계 얻어맞기도 하고 정직하게 세금 신고를

했다가 거금을 잃기도 했으며 아내가 만든 음식에 대해 “맛없어, 토하겠다” 같은 비판을 계속 던지다가 결혼 생활을 위기로 몰고가기도 한다. 그러나 가족들에게 참아왔던 불만을 정직하게 전해 가족애를 되찾고 늘 과대평가해온 자신에게 정직해져 자신을 객관적으로 볼 수 있게 되는 등 ‘정직의 힘’을 점차 발견하게 된다. 이 책은 극단적으로 정직을 추구했던 저자의 흥미로운 경험 속에서 우리가 왜 거짓말을 하는지, 거짓말이 정말 인간관계에 필요한지, 어떻게 세상과 소통해야 하는지를 생각하게 한다.

CULTURE

CONCERT

이은정 기자 mimi@yna.co.kr



>> 일렉트로닉 뮤지션 데드마우스, 첫 내한 공연

캐나다 출신의 일렉트로닉 뮤지션이자 DJ인 데드마우스(Deadmau5)가 처음으로 한국을 찾아 5월 9일 쉐라톤 그랜드 워커힐 시어터에서 내한 공연을 연다.

본명이 조엘 토머스 짐머인 그는 캐나다 토론토에서 프로그레시브 하우스와 일렉트로 하우스 음악 프로듀서로 활동하다 2006년 디지털 앨범으로 데뷔했으며 2009년 캐나다 주노 어워드에서 '올해의 댄스 레코딩 상'을 받았다.

이어 지난해에는 캐나다 밴쿠버 동계올림픽 메달 수여식에서 그의 곡 '모어 고스트 앤 스태프(More Ghosts N Stuff)'가 공식 음악으로 채택돼 세계적인 주목을 받았다.

일 정	5월 9일 밤 11시 30분, 서울 쉐라톤 그랜드 워커힐 시어터
티 켓	9만9천 원
주 최	대명코퍼레이션, 브이유엔터테인먼트
문 의	02-323-2838, 1544-1555

그가 오래된 컴퓨터에서 비디오카드를 교체하려던 순간 컴퓨터 안에서 죽은 쥐가 발견됐다는 얘기가 알려지면서 온라인 상에서 '댓 데드 마우스 게이(That Dead Mouse Guy)'라고 불리다가 현재의 예명 '데드 마우스'를 쓰게 된 것으로 알려져 있다.

>> 새 앨범 '왓 이프'로 내한한 록밴드 미스터 빅

히트곡 '투 비 위드 유(To Be With You)'로 유명한 미국의 록 밴드 미스터 빅(Mr. Big)이 5월 8일 오후 6시 서울 광장동 악스홀에서 콘서트를 연다.

이번 공연은 에릭 마틴(보컬), 폴 길버트(기타), 빌리 시언(베이스), 펫 토페이(드럼) 등 원년 멤버가 다시 모여 발표한 '왓 이프..(What If..)'의 발매에 맞춰 진행되는 월드 투어로 열리는 것이다.

1988년 결성한 이들은 '투 비 위드 유'와 '와일드 월드(Wild World)' 등의 히트곡을 남겼으나 팀 내 불화로 멤버가 교체되는 등 우여곡절을 겪다 결국 2002년 해체됐다. 그러다 2009년 원년 멤버로 재결성해 지난 2월 새 앨범을 발표했다.

일 정	5월 8일 오후 6시, 서울 광장동 악스홀
티 켓	11만 원
주 최	액세스이엔티
문 의	02-3141-3488

미스터 빅은 이번 투어에서 한국과 대만은 물론, 지진으로 큰 피해를 본 일본에서도 콘서트를 예정대로 진행할 것으로 알려졌다.



>> 박정현 콘서트 '조금 더 가까이'

가수 박정현이 5월 17~22일 서울 역삼동 LG아트센터에서 단독 콘서트 '조금 더 가까이'를 개최한다. 소속사인 티엔터테인먼트에 따르면 이 공연은 지난 4월 8일 예매를 시작한 지 1시간여 만에 95%의 예매율을 보였다.

최근 MBC TV '우리들의 일밤'의 '서바이벌 나는 가수다'(이하 나가수)에 출연해 뛰어난 가창력을 선보이며 화제가 된 박정현은 티켓링크 설문 조사에서 '나가수' 출연진 중 가장 공연을 보고 싶은 가수 1위에 오르기도 했다.

소속사는 "박정현 씨가 '나가수'를 계기로 다양한 연령대의 관심을 받았다"며 "무대 위에선 폭발적인

일 정	5월 17~18/20일 오후 8시 · 21일 오후 6시 · 22일 오후 5시, LG아트센터
티 켓	R석 9만9천 원, S석 7만7천 원, A석 5만5천 원
주 최	티엔터테인먼트
문 의	1544-1555

가창력과 카리스마가, 무대 아래선 귀엽고 사랑스러운 모습이 보여진 덕택이다"고 말했다.

박정현은 이번 단독 공연에서 '꿈에', '유 민 에브리싱 투 미(You Mean Everything To Me)', 'P.S 아이 러브 유' 등 대표곡을 선보인다.



>> 조용필, 전국 투어 공연 '바람의 노래' 개최

'가왕(歌王)'으로 불리는 조용필이 전국 투어 공연에 나선다.

조용필은 '2011 조용필 & 위대한 탄생 전국 투어 콘서트-바람의 노래'라는 타이틀로 5월 7일 서울 올림픽공원 체조경기장을 시작으로 12월까지 전국 각지를 돌며 공연한다.

서울에 이어 6월 4일 의정부 종합운동장, 6월 11일 청주 종합운동장, 6월 18일 창원 컨벤션센터를 거쳐 하반기인 9월 24일 경주 종합운동장, 10월 1일 성남 종합운동장, 11월 19일 일산 킨텍스, 11월 26일 부산 벡스코, 12월 3일 대구 엑스코 등지를 도는 일정이다.

1968년 록그룹 애트킨즈로 데뷔한 조용필은 1980년 솔로로 전향, '창밖의 여자', '단발머리', '돌아와요 부산항에' 등이 수록된 1집을 시작으로 '못찾겠다 꾀꼬리', '허공', '킬리만자로의 표범' 등 수많은 히트곡으로 국민의 사랑과 후배 가수들의 존경을 받았다.

일 정	5월 7일 오후 7시, 서울 올림픽공원 체조 경기장
티 켓	VIP석 15만4천 원, R석 13만2천 원, S석 11만 원, A석 9만9천 원
주 최	인사이트엔터테인먼트
문 의	02-541-7110

이번 무대에서도 40여 년간 '영원한 오빠'로 불리며 사랑받은 대표곡을 선사한다.

그는 지난해 5월 잠실 올림픽주경기장에서 소아암 어린이 돕기 '조용필 콘서트-러브 인 러브'를 통해 이틀간 총 10만 명의 관객을 모으는 저력을 과시했다.

>> 김연자, '어버이날 명품 디너쇼' 개최

뛰어난 가창력을 지닌 다이나믹하고 열정적인 가수 김연자가 5월 7~8일 서울 센트럴시티 밀레니엄홀에서 '김연자 명품 디너쇼'를 개최한다.

김연자는 일본에서 '엔카의 여왕'으로 불리며 활발하게 활동하던 '원조 한류 가수'로 2009년 일본에서 활동한 지 20여년 만에 국내 무대 활동을 재개했다.

이날 무대에서는 '수은등', '아침의 나라에서' 등 대표곡을 들려줄 예정이다.

일 정	5월 7일 오후 6시·8일 오후 5시, 서울 센트럴 시티 밀레니엄홀
티 켓	VIP석 22만 원, R석 19만8천 원, S석 18만 원
주 최	월드쇼마켓
문 의	1588-1555, 1600-1716

공연기획사인 월드쇼마켓은 "김연자 씨의 심금을 울리는 노래는 50대 이상 장년층에게 위안을 주고 향수를 불러일으킬 것"이라며 "일본에서 오랜 시간 활동해 이번 공연에는 일본 팬들도 대거 참석한다"고 말했다.



>> 엔니오 모리코네, 서울서 데뷔 50주년 기념 투어 첫 공연

엔니오 모리코네가 5월 16~18일 오후 8시 서울 세종문화회관 대극장에서 '엔니오 모리코네 50주년 내한 공연: 시네마 콘서트'란 타이틀로 무대에 오른다.

모리코네의 이번 내한 공연은 영화음악가로 데뷔한 지 50주년을 기념하는 것으로, 서울이 투어의 첫 번째 도시다.

이번 공연에는 이전 두 차례의 내한 공연에 동행했던 소프라노 수잔나 리가치, 유명 피아니스트 질다 부타 등 연주자들을 동반해 방한, 국내 100인조 모스틀리 오케스트라, 100인조 합창단과 협연한다. 또 이전 내한 공연 프로그램에 포함되지 않았던 '넬라 판타지아'와 원곡 '가브리엘의 오보에'를 비롯해

일 정	5월 16~18일 오후 8시, 서울 세종문화회관 대극장
티 켓	VIP석 22만 원, R석 18만 원, S석 11만 원, A석 7만 원, B석 4만 원
주 최	세종문화회관, 9엔터테인먼트
문 의	02-332-3277, 02-399-1114~6

한국 팬들이 좋아하는 곡들을 들려줄 예정이다.

그의 음악은 특유의 서정적이면서도 웅장한 멜로디로 인기가 높아 국내에서만 200만 장 이상의 음반 판매고를 기록했으며 2005년 OCN 조사에서 '한국인이 가장 좋아하는 영화음악 작곡가'로 선정되기도 했다.



유열이 만든 가족 뮤지컬 '브레멘 음악대'

가수 유열이 공연 제작자로 변신해 내놓은 야심작. 2006년 초연 이후 매년 봄마다 무대에 올라 지난해까지 전국에서 35만 명의 관객을 끌어모았으며 올해도 새단장한 모습으로 어린이 관객을 찾아가고. 독일 그림형제의 동명 동화를 뮤지컬로 각색한 것으로 지성철 작곡, 김승주 극작으로 첫 무대를 선보인 뒤 연출진을 일부 교체해 가며 매년 새로운 무대 연출을 시도해왔다. 올해는 뮤지컬 '라디오 스타' 등을 선보인 젊은 연출가 김규종을 역대 세 번째 연출가로 영입해 '축제 같은 뮤지컬'로 꾸민다. 특히 이야기꾼 역할을 하는 '텔러(Teller·사회자)'를 없애고 무대 예술의 측면을 강화한 것이 특징. 텔러의 빈자리는 마임과 영상으로 채워 볼거리를 다채롭게 했다. 막이 오르기 전 배우들이 직접 악기를 연주하며 객석에서 길놀이하는 등 흥겨운 축제 분위기도 연출한다. 주제곡 '브레멘 그곳은'을 포함한 뮤지컬 노래 20여 곡도 전곡을 새롭게 편곡했으며 이태섭 무대 디자이너를 영입해 트랙 구조의 세트를 선보인다. 줄거리는 호기심 많은 당나귀 '동키'가 동물 친구들과 떠나는 흥미진진한 모험담. 8월에는 중국 상하이 국제아동극페스티벌에 한국 작품으로는 처음으로 초청받아 개막작으로 무대에 오를 예정이다.

일 정 5월 29일까지 화 오전 11시, 수·목 오전 11시/오후 3시, 주말 및 공휴일 오전 11시/ 오후 2시/4시(월요일 공연 없음), 국립중앙박물관 극장 '용'
티 켓 3만~5만 원
문 의 1544-5955



2011 서울연극제 '연극, 우리 시대의 거울-이슈'

한국 연극의 현주소를 한눈에 살펴볼 수 있는 축제 한마당. 1977년 대한민국연극제로 출발해 작년까지 300여 편을 무대에 올리며 국내 대표 연극 축제로 자리매김했다. 창작극 활성화를 기치로 내걸고 열리는 이번 축제에서는 30여 편의 작품이 서울 대학로 공연장 곳곳에서 펼쳐진다. 공식 참가작으로는 36편의 응모작 가운데 완성도와 참신함 등을 기준으로 심사를 통과한 8편이 무대에 오른다. 극단 동의 '샘플054씨 외 3인', 극단 루트21의 '2g의 아킬레스건', 극단 이루의 '복사꽃 지면 승화 날리고' 등이 관객을 찾아온다. 실험적 공연을 소개하는 '미래야 숫아라' 참가작으로는 극단 대학로극장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나', 극단 이상한 엘리스의 '공무도하기', 프로젝트 락교의 '빈집' 등 6편이 선정됐다. 이들 작품은 공연 시간에 편당 20~30분씩 제한을 두는 쇼케이스 형식으로 공연되며 이 가운데 1개 작품은 내년 서울연극제 공식 참가작으로 선정된다. 올해 처음 신설된 '토론연극 핫이슈' 행사에서는 연극의 사회적 역할을 강조한다는 취지에서 관객들이 공연을 관람한 뒤 연출가와 극작가 등으로 구성된 패널과 함께 현장 토론을 벌이는 시간이 마련된다.

일 정 5월 15일까지, 대학로예술극장·아르코예술극장·설치극장 정미소
티 켓 2만~7만 원
문 의 02-765-7500

소프라노 조수미가 선사하는 고(古)음악 무대

올해로 세계 무대 데뷔 25주년을 맞은 소프라노 조수미가 국내 클래식 팬들에게 고(古)음악 무대를 선사한다. 조수미는 영국의 고음악 앙상블인 아카데미 오브 에인션트 뮤직(Academy of Ancient Music, 이하 AAM)과 함께 5월 7일 오후 8시 서울 예술의전당 콘서트홀에서 바로크 음악 콘서트를 연다. 조수미는 1986년 이탈리아의 트리에스테 극장에서 '리골레토'의 질다 역으로 데뷔했다. 지휘자 카라얀으로부터 "100년에 한 번 나올까 말까 한 신이 내린 목소리"라고 극찬을 들은 그는 이탈리아와 미국, 영국, 프랑스, 오스트리아에 위치한 세계 5대 극장을 누비며 활동해 오고 있다. 이번 콘서트에서 조수미는 비발디의 '세상에 참 평화 없어라'와 '나는 멀리 받는 아내라오', '폭풍이 몰아치고', 헨델의 '내게 돌아와 주오'와 '폭풍 속에서', 퍼셀의 '음악과 함께하는 이 순간' 등을 부를 예정이다. 조수미와 함께 무대에 서는 AAM은 1973년 크리스토퍼 호그우드가 창당한 단체다. 2006년부터는 건반 연주자인 리처드 이가(Richard Egarr)가 지휘봉을 이어받아 AAM을 이끌고 있다. 이가가 이끄는 AAM은 헨델의 '콘체르토 그로소' 전곡을 담은 음반으로 그라모폰 상을 받은 바 있다.

일 정 5월 7일 오후 8시, 서울 예술의전당 콘서트홀
티 켓 R석 25만 원, S석 20만 원, A석 15만 원, B석 10만 원, C석 5만 원
문 의 02-741-1763-5



피아니스트 보리스 베레조프스키, 내한 공연

러시아 출신의 피아니스트 보리스 베레조프스키(Boris Berezovsky)가 5월 8일 오후 2시 서울 예술의전당 콘서트홀에서 내한 공연을 연다. 모스크바 음악원에서 공부한 베레조프스키는 강력한 비르투오소 피아니스트다. 1988년 영국 워그모어 홀에서 가진 런던 데뷔 무대를 보고 '더 타임스'는 "눈부신 명연기와 무시무시한 파워를 지닌, 너무나 미래가 기대되는 아티스트"라는 리뷰를 썼다. 그리고 2년 뒤 그는 세계 3대 피아노 콩쿠르 중 하나로 꼽히는 차이콥스키 콩쿠르에서 우승했다. 그는 2002년 리스트의 '초절기교 연습곡' 전곡 연주, 2003년 베토벤 협주곡 전곡 연주, 2005년 라흐마니노프의 협주곡 3곡 연주 등 잇단 내한 공연으로 국내에도 적지 않은 팬을 보유하고 있다. '간반 위의 사자'라는 별명이 있는 그는 2009년 내한 공연에서 강력한 타건을 선보여 피아노 줄이 공연 중 끊어지는 일도 있었다. 이번 내한 공연에서 그는 김대진 한국예술종합학교 교수가 지휘하는 수원시향과 함께 피아노 협주곡 세 곡을 하루 만에 연주할 예정이다. 연주곡은 베토벤 협주곡 제2번, 리스트 협주곡 제2번, 그리고 라흐마니노프 협주곡 제3번이다.

일 정 5월 8일 오후 2시, 서울 예술의전당 콘서트홀
티 켓 R석 11만 원, S석 9만 원, A석 7만 원, B석 5만 원
문 의 02-541-2512-3

